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9월 1일(금)  
(음력 7월 11일)

Пятница

1 сентября 2017 г.

№ 34(11675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9월 2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9월 2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다. 이날 사할린주 여러 곳에서 이와 관련한 행사들이 펼쳐지게 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아침 10시 승리(포베다)광장에서 기념집회와 열병식이 개최된다. 사할린주향토박물관은 이날에 진행할 큰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저녁 8시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승리광장에서 붉은 깃발 흑해함대 앙상블의 공연이 이어진다. (이예식기자 사진첩에서)

## 단신

###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동포와 만날 계획

9월 6-7일 이틀간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에서 제3회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 정상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포럼에 극동의 지역을 비롯해 사할린주도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다. 포럼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소개할 전망이다. 사할린관도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할린지역과 한국과의 교류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동포애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포럼에서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사할린 한인사회계 대표들도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날 예정이다.

### 사할린주중앙학센터, 새 외과건물 개관

지난 30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주 중앙센터의 새 외과건물이 개관되었다. 개막식에는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 주 보건부 박 알렉세이 보건부 장관을 비롯한 본 의료기관 직원, 주 정부와 보건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코제마코 주지사는 최신 장비를 갖춘 7개 수술실을 포함한 외과 건물이 운영되는 것은 사할린주 의료 분야의 현대화를 지향하는 큰 사업의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3층의 새 외과건물에는 지하 장비 보관실을 비롯해 1층은 중앙멸균실이 위치하고 2층엔 외과 병실과 방사능과 면역조직화학 진단실, 엑스레이실, 초음파실, 컴퓨터 영상촬영실, 여러 실험실이 배치되었고 3층은 현대적인 수술실이 위치하고 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내시경, 영상촬영을 화면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수술과정이 실시간 중계되어 다른 지역의 의료진과의 상담도 이뤄지는 가운데 수술은 하루에 20건이 진행되며 1년에 4천 건의 수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라고 주보건부 홍보실이 전했다.

### <2017 섬들>주청년포럼 개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시네고르스키에 미네랄네 워드>휴양소에서 <2017 섬들>주청년포럼이 진행된다. 포럼에는 다양한 분야 (비즈니스, 정치, 체육 및 스포츠, 과학, 문화와 창작)의 청년 12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일주일간 사회적 주요 기획, 아이디어, 청년활동 구상, 지역시스템의 단일화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를 제안하고 청년정치 문제제기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포럼의 주요 교육내용 가운데는 사회적 기획,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발전에 대한 전망과 청년정치시스템의 문제와 해결점, 애국교육을 주제로 하고 있다.

포럼 개막에 참석한 사할린주 스포츠청소년정책부 예고르 움노브 차관(청소년정책 담당)은 포럼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전망이 밝은 청년들이 참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 9월 10일은 단일 선거의 날

## 의원후보 간 치열한 경쟁 벌여

9월 10일은 제7기 사할린주 두마의원 선거의 날이다. 지난 29일(화) 사할린주 선거위원회에서 있던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두마 의원선거에 10개 정당에 각 한 석을 차지할 선거지역 의원후보 80명, 300명은 비례투표로 참가한다고 체르카소와 워토리아 주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주장했다.

현재 311개 선거 투표소가 작업을 시작했고 그외 선박들에 170개 투표소를 준비하여 선거일에 운송할 계획이다. 주에서는 이미 사전 투표가 시작되었는데 투표는 접근이 어려운 사할린의 북부지방과 쿠릴 열도, 모네톤 섬, 그리고 군부대 등 약 60개 처소에서 이뤄졌다.

선거위원장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너무 많아 이번 선거운동이 치열한 가운데 불법 선전 사례가 발각되었다고 한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불만으로 이미 60여 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그중 극단적인 특징을 지니고 다니는 불법 홍보내용이 담긴 10개의 자료가 내무관리국으로 넘어갔다. 주 두마와 구역의회 선거운동 도중 31건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현재 투표지는 이미 모두 인쇄되어 모든 투표소로 발송되었다.

선거과정에 대한 정보는 선거일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능률적으로 투표자들의 참가 상황을 2시간에 한 번씩 변경하여 공시할 전망이다. 20.00시 이후에는 지역선거위원회로부터 개표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오르게 된다. (본사기자)

### 9월 1일은 개학날

9월 1일은 개학날이다. 사할린주 160개 학교가 8월 20일까지 개학날을 앞두고 준비를 마쳤다. 올해 학교 건물수리에는 11억5000만 루블리, 화재 경보시스템에는 4890만 루블리, 테러 보안시스템에 4720만 루블리, 위생·역학시스템에 1억 610만 루블리가 지급되었다. 필요한 조치에 대한 총예산의 대략적인 지출액은 총 15억 루블리다.

신학기 준비에 있어 특히 학생 급식, 교과서 구입과 교육기관까지의 학생 운송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사할린주교육부 나탈리아 무라소와 장관에 따르면 주 내 학교 모두에게 교과서 100%가 보급되어 학교 도서관용으로 29만8000권의 교과서를 주예산으로 구입해 보급했다고 한다. 이에 사할린의 1학년년부터 11학년까지의 학생들 모두가 무료로 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주예산으로 올해 1억 1000여 만 루블리가 배당되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전과정을 위한 교과서 2세트씩 준비돼 있으며 신학기에는 주 내 10-11학년생들을 위한 <천문학>과목도 개설되어 이에 따른 교과서도 확보된 상태라고 했다. 그외 주 내 학교들은 과목별 특별교실로 시설을 갖춘 73개 교실도 준비되었고 14개 교육기관에서는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보조기구를 갖춘 교실도 마련되었다. 통학문제에 있어서 현재 주 내에는 통학버스 111대가 있으나 연말까지 지역에 10대 버스를 통학버스로 더 확보할 계획이다.

9월 1일에는 사할린주 학교에 5만6000여 명의 학생들이 등교하게 된다. 이중 초등학교 입학생은 약 6000명이라고 사할린주 교육부홍보실이 전했다.

## 새고려신문

##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새고려신문을 구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동서양의 영화들이 만나는 <크라이 스베트> 사할린국제영화제가 8월 25- 9월 1일까지 진행된다. 그중 한국의 영화가 영화콩쿠르 경쟁부문에 올랐다.

한국의 유명 감독 김기덕의 작품 <그물>이다. 이 작품은 2016년 제작되어 10월에 개봉된 영화다. 영화는 27,28일에 상영이 되었으나 체첸센터에서 상영된 27일 당일표는 매진 상태였다. 그만큼 사할린의 관객들에게도 기대감을 주는 영화였다.

영화 <그물>은 김기덕 감독의 스물두 번째 작품이다. 여러 언론과 방송사들의 인터뷰에서 김기덕 감독은 영화를 자신만의 문법으로 표현한다고 평한다. 그는 1년에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는데 제작 기간은 두 달 정도라고 한다. 일 년 중 남은 시간들은 고민하고, 탐색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자신의 고독과 싸우는 가운데 시나리오를 완성해 낸 후 영화를 촬영한다고 한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영화 제작에 대한 철학을 "가슴으로 찍은 영화는 스크린에서도 그 심장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사할린에서 영화 첫 상영하기에 앞서 김기덕 감독과 함께 4편의 영화를 제작해 온 김순모 프로듀서가 나와 영화를 소개했다. 그는 사할린국제영화제에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올리게 되어 기쁘다는 뜻을 전하고 영화 내용은 분단국가로서 한반도에 사는 한 평범한 어부의 슬픈 이야기라며 이 영화를 사할린의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 관객 중에는 여러 나라의 감독들과 영화 관계자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영화 <그물>의 주인공은 한국 유명 배우이자 성격이 강한 캐릭터 역할을 잘 소화해 내는 류승범이 북한 어부인 남철우 역을 맡았다. 영화의 첫 장면은 황해남도 강령군 부포리에 남방 한계선이 가까운 낚고 허름한 한 어촌 마을이 화면을 밝힌다. 남철우는 어부다.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 살며 아내와 어린 외동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고깃배는 제 전 재산입니다."라

2017년 제7회 <크라이 스베트(세상의 끝)> 사할린국제영화제

'내레 사상보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 영화 <그물> -



▲ 김순모 프로듀서와 통역자 이옥분.

고 남철우는 말한다. 그러나 배를 타고 나가 배의 모터와 그물이 엉겨 망가지면서 배는 맥없이 물길따라 남방 한계선을 넘어간다. 북측 군인들은 이를 보고 저격하려다 남철우에 대해 말한다. "저 가족이 있으니까 돌아오겠지..." 이 영화에서 남철우의 대사 중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가족'이다. 그의 주변인들도 그가 가족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게 되는 장면이다. 결국 배는 남쪽으로 흘러 남측 군인들에게 발각되고 남철우는 한국 측 탈북자 조사실로 끌려간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에게는 자기로 인해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북쪽의 아내와 딸이었다. 그리고 재빠르게 눈을 감아버린다. 지금부터 자기는 탈북자도, 어떤 의도로도 남측에 온 것이 아님을 보이려는 것이다. 그리고 되돌아가 북측의 보위부 조사관에게 가족이 당할지도 모를 해를 생각하며 일체 남측의 풍경을 눈을 감아버린다. 결백을 증명해 보이려는 듯 안간힘을 쓰며 "보면 기억하게 되고, 다그치면 불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 게 없어야 말 못하지..."라고 말한다. 그래

서 남측 조사를 받는 내내 남철우는 반드시 북측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 애원한다. 한편 남측에서는 남철우를 위장간첩이나 귀순자로 처리하려고 조사상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심문을 한다.

자유롭고,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뭐든지 풍족한 남한에서 남철우는 별거벗겨지고 북한에서 입었던 옷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데 대해 격렬하게 항의한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자술서를 쓰

는 강압 속에 귀순으로 유도되거나 잠재적 간첩이라는 누명까지 쓰는 위기에 내몰리면서 "내레 사상보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외친다. 남철우는 북으로 송환시켜준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그 와중 탈북한 무산사람이 간첩으로 몰려 조사받던 중 자신의 딸을 찾아 말을 전해 달라고 그에게 부탁한 후 허를 깨물고 자결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자결할 만큼 딸에게 전할 절실한 부탁이기에 그의 일신에 어떤 위험이 닥치든 계산이 없어진다. 강직한 결심을 못이긴던 남측 조사단은 남철우를 서울 심장부에 있는 명동의 거리에 던져놓기로 계획한다. 남철우는 수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시각장애처럼 눈을 감는다. 돌아갈 땅과 돌아갈 가족을 위해서.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눈을 뜨고 자유와 풍족이 넘쳐 쓰레기도 넉넉한 거리, 친절하고 사 람들, 손에 휴대전화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다 주머니 안에 추적 칩을 버리고 자유로이 도망친다. 한 뒷골목에서 속옷만 입은 채 남자들에게 욕을 듣고 매를 맞는 매춘부를 구하고 그녀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다. 남측의 여인과 첫 만남이다. 여자는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지만 자신은 돈이 없어 몸이라도 팔아 생계를 이어야 한다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고 말한다. 반면 남철우는 가족이 없는 데서 사는 것에 죽고 싶은 마음이다. 여자는 몸을 팔아서라도 가족을 챙기며 동생의 학비를 해결해 주며 자본주의국가에서 산다. 남철우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고기잡이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독재국가로 돌아가 살고자 한다. 이후 남철우는 허를 깨물고 죽은 동료의 딸을 끝내 찾아내어 말을 전달하고 부탁을 완수한다. 그리고 그의 감시인에게로 돌아와 다시 조사실로 옮겨진다.

남철우는 감시인에게 "자유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내레 그물에 단단히 걸렸어. 고기는 그물에 걸리면 끝난 거지. 그 동안 너무 많이 고기를 잡았나보다."라고 읊조린다. 다시 조사인에게 강압과 폭력으로 억지 자백을 강요당하지만 남철우는 송환을 주장하고 자결을 시도하다 실패한다. 이후 사고로 인한 남방한계선 이탈이 인정되고 그의 배는 수리가 된다. 마침내 북으로 송환. 그는 받은 선물과 입었던 옷, 속옷까지 다 벗어놓고 딸아이에게 즐 영어로 말하는 곰인형만 배에 숨기고, 달려가 든 캡슐을 삼키고 송환된다.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만 챙긴 셈이다.

북에 도달해 남철우가 한 첫 질문은 "내 가족은 안전합니까?"이다. 그러나 북한 보위부로 끌려가서 "왜 배를 버리고 돌아오지 않았어?..." 또다시 강압과 폭력이 가해지는 심문에 남철우의 몸과 마음은 심히 지쳐간다. 그는 가족만 볼 수 있다면 백 번이라도 자술서 쓰겠다고 한다. 결국 뱃속으로 삼킨 200달러의 돈 캡슐이 변 속에서 들통나면서 가혹한 심문을 입막음하는 돈이 된다. 그는 한국산 곰인형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변함없는 집, 가족. 그러나 아내의 어깨에 상처가 있음을 발견하고 남철우는 반가운 마음도 접고 쓰러진 채 눈물을 흘린다. 마지막 장면이다. 남철우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에게 내려진 어획금지명령을 어기고 다시 고기잡이 배를 타고 나간다. 그리고 북한군에게 저격되어 남철우는 자신의 배에서 쓰러져 죽는다. 그리고 어린 딸은 한국산 곰인형을 두고, 낚고 정든 곰인형을 안으며 미소를 짓는 데서 영화는 끝난다.

영화의 흥미성을 두고 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감독이 곳곳에 숨겨둔 상징과 의미들을 찾아 연결시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관람하는 관객들이 할 일이다.

영화 후 김순모 프로듀서와 <문답> 시간이 주어져 간이 인터뷰실은 사람들로 가득찼다. 영화 <그물>은 작년 2월에 촬영하여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상영되었다고 한다. 김 감독은 언제나 인간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삼는데 이번에는 많이 유연해진 편이라 평했다. "생존, 가족에 대한 갈망과 욕망은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으며 인간 본연의 삶은 무엇으로 막고, 무슨 그물로 잡을 수 있겠는가? 남철우가 잡으려는 물고기와 준비된 배, 생존의 도구로서 배와 그물로 보아 달라."고 김 프로듀서는 설명했다.

남철우의 생존에 대한 갈망에 두 나라의 이념적 체제는 무의미했다고 했다. 영화의 소재는 한국의 간첩조작 사건이 동기가 되었고 제작비도 2억원 정도로 저렴하게 찍었다고 한다. 김 프로듀서는 김기덕 감독과 영화를 제작하면서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앞으로 김 감독 꾸준히 영화를 만들길 응원하며 자신도 영화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혜신)

이 모 저 모

홈스크 주민들, 무료로 한국어 수강

홈스크시한인회는 항구도시인 홈스크 시민들에게 한글학교 학생을 모집 (8-10세 학생반, 성인반)한다고 알렸다. 시한인회 류 타마라 강사의 말에 따르면, 5년 전 첫 수강생들에게 처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고 한다.

"일주일에 두 번의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에게 한국어 기초, 읽기를 가르치고 있다. 각 그룹은 연령별과 언어능력 수준에 따라 자체 교육프로그램이 작성돼 있다. 더불어 학생들은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익히고 수업시간 외에 시한인회가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가할 계획이다."라고 류 타마라는 전했다.

소웨트스카야 거리 66번지에 위치한 한글학교의 수업은 무료다. 교육신청 진원과 자세한 문의는: 89242894527, 89140889747 이 89841837344로 할 수 있다.

Холмчанам предлагают бесплатно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Холмска информирует жителей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о том, что продолжается набор детей 8-10 лет, а также взрослых в школу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я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амары Рю, самых первых своих учеников школа приняла около пяти лет назад.

— На занятиях (а они проводятся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ребятам преподают основы классиче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чиная с освоения азбуки, учат читать. Для каждой группы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и уровня имеющихся языковых знаний разработана сво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Параллельно дети знакомятся с культурой и традициями корейцев и даже участвуют в свободное от учебы время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которые устраивает наша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 отмечает Тамара Рю. Занятия в школе, что располагается в доме №66 по улице Советской, бесплатные. Записаться на них, а также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по следующим телефонам: 89242894527, 89140889747 и 89841837344.

사할린 울트라마라톤 코스 위키백과에 등재

사할린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울트라마라톤 코스가 위키백과에 오른다. 이 코스를 완주한 드미트리 예로힌은 결산 기자회견에서 8월 21일 이와 같이 밝혔다.

울트라마라톤 선수는 거리 1200킬로미터를 19일 4시간 만에 완주했다. 그는 이런 결과를 가까운 시일 내에 기네스 세계기록부와 러시아 국가최고기록부에 등재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선수는 섬지역 몇몇 지역을 추가해 마라톤코스로 추진할 예정이다.

"저는 위키백과용으로 사할린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와 사할린에서 촬영한 사진 약 500장을 삽입해 위키백과에 실을 계획이고 올 10월 중순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위키 콘퍼런스에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목적은 관광 발전을 꾀하는 데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 자신의 기록을 쫓 생각입니다. 저를 따라 다른 선수들도 와서 더 나은 기록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라고 예로힌 선수는 밝혔다. 이외에도 인터넷상으로 '울트라사할린.루' 사이트를 제작하여 선수들의 수집된 정보를 공유할 전망이다.

"제게 GPS 경로가 있는데 이를 20가지 형태로 올릴 계획입니다. 여행자든, 육상 선수든, 지프 선수든 일정 코스를 질주하려는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 도로, 오솔길, 강, 폭포 등 사진에 설명을 덧붙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작된 이 사이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할 거라 확신합니다."라고 예로힌 선수는 덧붙였다.

그외 예로힌 선수의 보고문은 러시아 국가전용 오솔길 조성에 따른 연방 프로젝트에 참고로 들어갈 전망이다. 예로힌 선수는 이미 <거대한 사할린 오솔길>라는 제목도 생각해 두었다. 현재 <지식>협회, 러시아 연방 사회원, 러시아연방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가 기획자로서 제작하고 있고 예로힌 선수는 곧 러시아지리학협회에서 사할린지역 경주코스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8면에 계속)

### 한국의 남동구노인복지관 일행 사할린 방문

대한민국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남동구노인복지관(김용배 관장, 윤희 과장, 이하늘 팀장, 신동식 사할린 경로당 회장)이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노인문화·복지서비스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할린을 방문했다. 사할린 한인동포들과의 만남과 기관교류를 위해 사할린주 한인협회(박순옥 회장), 이산가족협회(박경준 부회장), 노인협회(김홍지 회장), 브이코프 단광과 경로당(리경수 회장), 돌린스크 시청(투가레브 알렉산더 발레리빅 시장), 코르샤코프 시청(그리그 페트로치 골로드니코프 행정부 차장)과 경로당(이태준 회장), 유즈노사할린스크 경로당(임중환 회장)을 방문하며 사할린동포 어르신들과 공

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과 협력할 수 있는 우호도시 체결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남동구 노인복지관은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사할린주 한인협회, 한인노인협회, 한인 이산가족협회의 협회장과 다양한 문화 및 기관 교류에 대해 협의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남동구노인복지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에 위치한 대천병원과 함께 동포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사할린주한인회 제공)

### 독자의 편지

### <한국이여, 답을 해보라!>를 읽고

새고려신문을 수십 년 동안 애독하는 독자로서 본사 사원들이 1949년부터 발행되는 한민족지를 경제상으로 어려운 오늘에도 유지하려는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매주일신문을 배달해 받을 때마다 나는 배 워토리야 사장을 비롯 본사 사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오늘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2017.08.18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독자이체인 씨의 기사내용에 감동되어서이다.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자기 민족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데려가고자 했다... 그런데 해방된 조국은 자기 민족을 찾지 않았고 또 오늘까지 사할린 땅의 한민족을 찾지 않았고 또 오늘까지도 사할린 땅의 한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전쟁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는 자유로운 시대에 무슨 이유로 부모·형제를 생이별시키고 있는가?... " 이 글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이체인 씨의 기사에서 발췌했다. 옳은 말씀이다. 우리 80세가 넘는 노인들 모두가 이체인 씨의 의견에 동의할 것 같다.

1세대들에게만 영주귀국 자격이 부여되었다. 그것도 미망인들은 배우자가 없으면 영주귀국할 자격도 없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90년대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할린에 잔류하고 있다. 영주귀국한 분들은 이제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곁에서 보호해줄 자식 하나도 없다 한다. 이웃에도 80~90세 가까운 고령자들이다. 누가 시중을 들어 주겠는가? 그래서 조국으로 반갑게 귀국했다가 다시 사할린으로 자식 곁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자식을 사할린에 남겨놓고 1세대들만 한국이 받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이체인 씨가 사할린한인들의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사회여론에 제기했다. 때문에 사할린주한인단체들,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할린총장소가 사할린한인문제에 주목을 돌리고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고 사할린한인문제를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도 가슴아픈 우리의 문제를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바이다.

2017.08.23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독자 1세 전채련

### 사할린주 내 각 구역들, 광복절을 기념하여

광복 72주년, 일본제국주의부터 남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 72주년 기념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만 아니라 사할린주 내 여러 구역들에서도 펼쳐졌다.

크라스노고르스크에서 전통적인 이 행사는 8월 19일 <스카즈카>카페 여름 야외마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모인 한인동포들에게 크라스노고르스크 한인회 문종기 회장, 토마리구역 시의회 슈냐코브 블라지미르 의장이 따뜻이 축하해 주었다.

행사는 약 30명이 모인 가운데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맛있는 명절상은 참가자 모두가 집에서 장만한 요리와 샐러드가 차려졌고 주민들은 익살도 떨고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크라스노고르스크한인회 여성 담당자 김수옥 씨가 전했다.

네벨스크 한인회도 역시 이 행사를 8월 19일 개최했는데 행사장은 네벨스크시 부근에 있는 로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강복숙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 회장은 강조했다. 한민족 전통놀이들은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우승자들에게는 우글레고르스크 예수장로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시상하고 이날 행사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도 좋았다고 했다.

토마리에서는 광복절 행사가 8월 20일(일) 중앙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펼쳐졌다. 1세대를 대표한 오철호 옹과 토마리한인회



회장 김 스타니슬라브 씨가 주민들을 환영하며 축사를 했다. 토마리 만자라 올라 부시장도 주민들에게 축하하고 행복과 건승을 기원했다. 시문화회관과 아동예술학교가 준비한 공연 프로그램, <아리랑>예술단의 무대 등은 명절다운 기분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주민들에게 국수와 반찬(5가지) 300인분을 무료로 대접하고 한인동포 1세대들을 위한 특별 명절상이 차려져 시민들과 동포들은 아주 만족해 했다고 한다.

사실 크라스노고르스크 문종기 회장을 제외하고는 네벨스크한인회 김 블라지미르 회장,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 강복숙 회장, 토마리한인회 김 스타니슬라브 회장은 40-50대의 아직은 젊은 연령층이라 회장으로서 갖은 일 마다않고 열심히 뛰는 모습이 모두에게도 보기가 좋다.

(본사기자)



파티노 부락 바닷가 야외마당이었다. 동포 80여명과 초대 손님 50명이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할린의 유일한 동포시장인 박 블라지미르 네벨스크시장이 참석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공연프로그램은 네벨스크 시문화회관 예술단들, 고르노사위드스크 사물놀이팀, 네벨스크 한인예술단의 출연과 테ควัน도 시범으로 이루어졌고 무료로 참석한 분들에게 배운 명절상에는 한식과 샐러크, 멜론과 수박도 올랐다. 날씨도 참 좋았고, 기분도 최고도로 오르면서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네벨스크한인회 김 블라지미르 회장은 소회를 밝혔다.

우글레고르스크 동포들도 역시 광복절을 8월 18일 <차이카>레스토랑에서 기념했다. 이에 앞서 우글레고르스크시에서 계획에 따른 수리로 16일부터 3일 동안 물공급이 완전히 끊겼다고 한다. 행사에 60여 명이 참가했는데 물공급 문제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찾아올 수 있었을 거라며 나체노크가 한국노래 여러 곡을 훌륭하게 불러주어 사람들의

### 알립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허경자 회원이 오.코제마코 주지사와의 만남에서 사할린 연금자들이 사할린주 형성 70주년 관련하여 일시보조금을 받고, 그 외 추가로 <전쟁의 아동들(19236월 - 1945년간 출생 러시아연방 침 구소련 국민)이 일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이 이걸 받지 못한다고 문제를 설명했다. 그 이후 이 문제로 허 씨는 사회보호부 예.카시야노와 장관과 만나 상담을 받았다.

카시야노와 장관은 <전쟁의 아동들> 같은 경우 지원금을 사할린주 내에서 잔류하는 연금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답변했다. 러시아연방을 임시 떠난 후 국민들이 자택으로 돌아와 사회복지기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허경자 씨에 따르면 러시아국적과 한국국적을 가진 영주귀국자들은 <사할린주 노동 베테랑>, <전쟁의 아동들>의 특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할린주 노동 베테랑>의 특혜 지원금을 받기 위해 거주지역 사회복지부(러시아어권, 노동 베테랑 책자, 노동기록책자 요구)를 찾아야 한다고 전해졌다.

### '제19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 선정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은 제19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총 30편을 발표했다.

재외동포문학상은 재외동포들이 한글로 문학창작활동을 함으로써 우리글을 잊지 않고, 차세대 재외동포에게 모국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재외동포 문학 창작의 축제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재외동포문학상에는 총 47개국에서 1,520편의 작품이 접수돼 지난해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성인부문 대상에는 시 부문 강원희 씨(미국)의 '별자리를 따라간 이중섭', 단편소설 부문 이권재 씨(미국)의 '아버지의 초원', 수필 부문 백동흙 씨(뉴질랜드)의 '갯~니~프!' 가 각각 선정됐다. 청소년 글짓기 부문에서는 중·고등부 강동현 군(인도네시아)의 '작은 천사들의 미소'와 초등부 김신영 양(태국)의 '스몰넷 꾸러미 선물'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한글학교의 한국어 작문 등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한글학교 특별상'은 태국 치앙마이 한글학교와 호주 새순 한글학교가 수상했다. 태국 치앙마이 한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특별상을 수상 하는 쾌거를 이뤘다. (7면에 계속)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КОРЕЯ, ОТВЕТЬ НАМ, ПОЖАЛУЙСТА!

В газете «Сэ корё синмун» от 18 августа 2017 г.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матери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я 2-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Че Ина «Корея, ответь нам, пожалуйст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статья вызвала большой резонанс среди читателей, в редакцию поступили отклики, а также звонк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русскоязычный вариант данной статьи. Перевод сделан автором публикации.

Сегодня, может завтра, может через месяц, а может быть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Так прошло без малого 50 лет жизни в бесконечном тоскливом ожидании встречи с родиной, на которую так и не смогли вернуться, уйдя в мир иной, наши родители,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Если изучить историю Кореи середины XX века, то можно понять по чьей вине остались на чужбине наши родители. Можно попробовать восстановить историческую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но прошедшее «вчера» не вернешь назад и не сделаешь его днем сегодняшним.

И хотя Корея освободилась от японской аннексии более 70 лет тому назад,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до сих пор никак не может решить вопрос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пока оно не признает вопрос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циональной трагедией, он не будет решен до конца.

Как мы все знаем, отношения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были налажены в 1990 г., после Сеульской Олимпиады -88. Благодаря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осту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могла успешно провести Олимпиаду. Но почему же она вернула на родину лишь ча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азделив их на до и после 1945 года рождения. Почему так случилось? Это же все равно, что привязать невидимыми наручниками оставшихся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цев! Проводя такую политику, она сознательно идет на образование новых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Зачем и для чего? Чем эта политика отличается от политики Японии, которая насильственно вербуя дешевую рабочую силу, ни с чем не считаясь, разлучала семьи корейцев. Здравым умом невозможно понять условия репатриации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ложенн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Это разделение больнее, чем разделение, произошедшее в годы японской аннексии, потому что для нас оно явилось ударом в спину. Разделение семей Японией, было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акцией,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есть ответ. Ответ простой. Хочешь умереть - умирай, хочешь жить - работай и старайся хоть на один день дольше прожить для процветания имперской Японии. Однако, как можно объяснить условия репатриации, которую проводи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для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ы хотели бы получить обстоятельный ответ от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Япония вывезла в свою страну из Сахалина всех до единого японца. Даже корейцев из смешанных семей, где отец - кореец, а мать - японка. Вывезли детей, потому что в их жилах течет 50% японской крови и при этом, чтоб дети не остались сиротами, вывезли и отца - корейца.

Но освобожденная Корея не только не поинтересовалась судьбой своих 40 000 граждан, оставленных японцами на Сахалине, но до сих пор не признает нас гражданами своей страны.

Напрашивается вопрос правительству Кореи: «В наше мирное время - без войны, без катаклизмов - по какой такой причине родная страна вновь создает разделенные семьи?»

Хочется громко прокричать: «Корея, ответь нам!»

Всякому действию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должно быть здоровое разъяснение!

Де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1-ое и 2-ое поколение - это равносильно проведению границы между родителями и детьми. Зачем вы дробите свою нацию? Зачем вы разделяете семьи, тем самым дробя страну?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ей достаточно хорошие. Но кто знает, как может измениться 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АТР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К тому же, самая горячая точка в этом регионе находитс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пыт прожитой жизни заставляет нас испытывать чувство тревоги. Мы хорошо знаем, что значит жить, когда граница закрыта. Живя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мы даже не могли подумать о том, чтобы взять билет на очередной рейс самолета и слетать в Южную Корею на свидание с родными. Мы хорошо помним, как наши родители тосковали по новостям из Кореи. И трудно выразить все те чувства, что мы испытывали, глядя на тоскующих родителей.

Помню звуки, рассекающие воздух, это глушили радиоволны В те времена, даже радиоволнам было трудно пересечь границу, а нам людям и подавно.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АТР, «ограничительная линия», которую установил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между отцом и сыно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жет превратиться в более трагичную линию, чем 38 параллель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Кореи. Эта линия может превратиться в очередную национальную трагедию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Нет никакой гарантии, что возврата тех времен не будет.

Для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связи между поколениями, 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2-го поколения должна быть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в трудные минуты жизни родная страна всегда призовет и укроет нас под своим крылом. Только при наличии такой необратимой веры у 2-го поколения, может появиться чувство любви к родине предков у наших детей, которы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могут стать определенной силой для Кореи. Если этого не будет и 2-ое поко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застрянет на «ограничительной линии» и не сможет выехать в Корею на ПМЖ, то на этом оборвется родословная связь 2-го поколения с Кореей и, тем самым, ценность и крепость семейных уз для этого рода сильно ослабеет. Зачем это делает страна, которая веками чтит родословие своей нации, на котором держится национальное древо Кореи

Это и есть трагедия и боль нации. Осознайте боль человека одной нации! Мы хотели бы видеть свою Корею передов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страной, которая не делит свою нацию на 1-ое, 2-ое, 3-ье поколения, которая видит силу страны в единстве нации.

Нижеследующие слова обращены к людям из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торые имеют и ухаживают за своими пожилыми родителями. Живя здесь на Сахалине, мы хорошо знаем, какие нечеловеческие трагедии разыгрываются в городах, где проживают репатриированные из Сахалина корейцы.

25 лет тому назад, когда началась репатриац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о по 60-70 лет.

В этом возрасте люди еще могу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ередвигаться.

Сегодня им уже по 85-95 лет.

В этом возрасте уже тяжело встава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Ко всему прочему в этом возрасте люди часто болеют.

Хочет встать но не может вста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Хочет выпить воды, но некому поднести стакан.

Хочет позвать на помощь, но некогда звать.

Хочет позвать соседа, а сосед в еще худшем состоянии.

Это вопрос морали и гуманизма. Как нам в условиях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когда мои родители живут в Корее, а мы здесь на Сахалине, соблудности традиционное корейское почитание родителей (효자)?

1-ому поколен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так хотели вернуться и вернулись на родину, сегодня, став беспомощными стариками, вынуждены возвращаться назад на Сахалин, к своим детям.

Какой умник на таких негуманных условиях репатриировал наших родителей, братьев и сестер? Ведь должен же быть ответ на этот вопрос?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е не может отстоять достоинство своей н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е в течение 70 лет не может признать вину и раскаяться за трагед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Это преступление, которое человек не должен допускать.

**Корея, дай нам ответ!**

Чем больше проходит времени, тем сильнее и тяжелее становится душевная бол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эта боль не угаснет с уходом 1-го поколения в мир иной. Она будет передаваться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Чем тяжелее и сильнее эта душевная боль, тем тяжелее будет даваться решение вопрос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тдавая дань нашим родителям, отошедших раньше времени в мир иной, думая о будущем наших детей, мы должны отстоять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ражданами которой по праву должны были быть наши родители.

Мы -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е являемся нацией «без рода и племени», мы выходцы из страны, где сохранились наши родословные родины.

У нас есть родина, которую мы любим. Мы верим, что являем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народа с сильным чувств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и будем идти до конца в решении наших вопросов.

И ЧЕ ИН.  
14/08/2017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 - 476 руб. 28 коп.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 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Президент РК назначил новых послов в США, Японии и КНР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назначил в среду новых послов РК в крупнейших странах мира, которые одновременно являются ключевыми партнёрами Сеула в деле решения ядерной и ракетной проблем Пхеньяна. Послом в США стал профессор аспирантур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сеул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ган Чо Юн Чжэ. Послом в Японии назначен профессор факульте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Кённам Ли Су Хун. Глав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в Китае назначен бывший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трёх созывов от бывш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Но Ён Мин. Все трое — опыт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в област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 Предложение Сеула о встрече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остаётся в силе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отребовало от Пхеньяна ответить на предложение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встреч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эк Тхэ Хён в ходе очередного брифинга,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о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ведения встречи во время осеннего праздника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редложение Юга о проведении таких встреч не имеет срока давности. Он также сказал, что в интересах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инистерство будет «терпеливо»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у согласно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й полити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Пхеньян официально сообщил об успешном испытании ракеты «Хвасон-12»

Утром 29 августа в СК проведён успешный пуск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Хвасон-12»,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На учениях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войск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отвечающие за нанесение удара по американским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базам в Тихом океане на случай непредвиден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ой среднего радиуса действия «Хвасон-12»,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он Ын лично руководил испытаниями, выразив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успешным запуском. Он отметил, что данное испытание является первым шагом в проведении военных операций в Тихом океане, а также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в сдерживании США в вопросе применения Гуама в качестве базы для вторжения в КНДР. Он также заявил, что нужно провести ещё много испытаний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в направлении Тихого океана, развивая и модернизируя потенциал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ооружения, —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ЦТАК.

## Учения Ulchi Freedom Guardian завершились

31 августа завершились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е учения Ulchi Freedom Guardian, начавшиеся 21 августа. В них участвовали 50 тыс.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 17,5 тыс.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Около 3 тыс.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ША были переброшены с зарубежных баз. К учениям привлекались такж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из стран, входящих в объединённое командование ООН — Австралии, Канады, Колумбии, Дании, Новой Зеландии, Нидерландов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США не привлекали к учениям дальние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и и авианосцы, но Вашингтон направил в РК главу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ВМС США адмирала Гарри Харриса, главу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США генерала ВВС Джона Хайтена и директора Агентства США по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е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а Сэма Гривес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хеньяну был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а готовность к сдерживанию с провокаций.

## В РК сокращается численность школьников

В РК сокращается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31 август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опубликовали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ённого среди 20 тыс. школьных и дошко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в стране насчитывается 6 млн 468 тыс. 629 детей, посещающих детские сады и школы. Это на 2,5% мен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учеников школ средней ступени сократилось на 5,2%, а высшей ступени — на 4,7%. Показатель младших классов немного вырос на 0,1%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в школу пошли дети, родившиеся в 2010 году, когда отмечался рост рождаемост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акже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109.387 школьников из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х семей. Эта отметка выросла на 10,3%. Показатель превысил уровень в 100 тыс. человек впервые с 2012 года, когда начался сбор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татистики.

(RKI)

## "Сыновья" Маши Павловой - маленькая заноза в сердце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Сыновья" был снят к 65-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го режиссер Маша Павлова, выросшая на острове, работала тогда оператором и монтажником в одной из местных телекомпаний. Решено было снимать серию небольш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фильмов об истории и специфике Сахалина. Нефтегорск, тайфун Филлис,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ого периода на Сахалине через призму квартир его жителей, хроника развития



нефтяной отрасли... Журналисты телекомпании разобрали темы, чтобы сделать скорее не фильмы, а большие сюжеты. У Маши же получилось настоящее кино, бьющее точно цель — в тот маленький ахиллесовый кружочек внутри каждого из нас, который защищен тонкой бумагой в то время, как все остальные мы закрыты прочной броней от лишних переживаний. Маленькая острая стрела прилетает в яблочко, остается где-то в глубине занозой, сначала болит, потом врастает в плоть, оборачивается впечатлением.

Наверное, с такой стрелой внутри ушел каждый зритель, посмотревший фильм "Сыновья", который показали на фестивале "Край света"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Кино Сахалина".

"Судьба отправляет меня в далекий-далекий путь: утром я покину свой дом. И каждый камень на этой дороге будет бить меня в самое сердце, и слезы будут литься из глаз моих..." — эту песню сочинил один из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насильно привезенных японцами на Сахалин. Их вербовали сюда на два года, а оставили — вдали от Родины и семьи — почти на пятьдесят лет. Большая политика всегда катком проходит по судьбам народов. А ведь за цифрами, списками и перечислениями стоят реальные жизни людей. Матери отправляли своих сыновей юношами, а назад дождался уже глубоко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 говорится в аннотации к фильму.

Крупным планом в кадре — двое престарелых мужчин: Пе Ен Гон, житель села Быков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и Ким Юн Дык из Синегорска. Их истории очень похожи: обоих вырвали из привычной жизни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и бросили на незнакомый остров, оба добывали уголь в шахте и чудом не погибли во время обвалов горных пород, из-за голода, преследующего ежедневно страшной тенью каждого, кто работал на японцев. Рассказ о том, как двоим шахтерам удалось подкопить немного денег и купить булку хлеба, который они не пробовали ни разу в жизни и съели за один вечер, хотя договаривались растянуть на два дня, заставляет сердце мучительно сжиматься.

Но самое горькое и невыносимое — разлука с родными, невозможность вернуться к ним в течение долгих лет. В фильм вошла запись состоявшегося в прямом эфире телемоста "Корея — Сахалин", во время которого уже взрослый сын, у которого свои дети и внуки, впервые после разлуки разговаривает с матерью и из-за кома в горле не может сказать ничего, кроме "мама, мама, я скоро приеду", а мать только плачет и повторяет его имя. Именно эта запись, увиденная задолго до создания фильма, заставила режиссера обратиться к теме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 Там такой нерв! — объясняла Маша свой выбор и добавляла — тоска завезенных на Сахалин корейцев по Родине созвучна с нашей общечеловеческой, вечной тоской по дому.

Работа над фильмом продолжалась около трех месяцев. Русские голоса героям фильма подарили актеры Чехов-центра Владимир Абашев и Виктор Черноскутов. Они приходили в телекомпанию и долго писались в "хрипушк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безжалостной Маши, которая добивалась интонационной точности каждой фразы. Этому предшествовали поездки в Быков и Синегорск, запараллеленные с основной работой, вечера, проведенные у монитора с переводчиком, чтобы каждый синхрон на корейском совпадал с русским аналогом, работа с архив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Вскоре, после создания "Сыновей" Маша, уехала в Москву, где училась у Марины Разбежкиной, работала на "Ленте.док", сняла фильм "Дорогой дядя Вава" про журналиста Кировской газеты "Вятский наблюдатель" Леонида Ковязина, который 6 мая 2012 года по заданию редакции поехал в Москву снимать сюжет о "Марше миллионов".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спустя его арестовали по обвинению в участии в массовых беспорядках. Через полгода после ареста Леонид женился на девушке Жене. Регистрация прошла в СИЗО. После наблюдения за долгим "болотным" процессом Маша пришла к одному выводу — если бы в нашей стране все соблюдали законы, с остальным можно было бы как-то разобрататься.

НАТАЛЬЯ ГОЛУБКОВА,  
ИА «САХКОМ»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чество социальных услуг находится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К такому выводу пришли участники выездного заседания Постоя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общественному контролю Совета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ая делегация, возглавляемая советником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Михаилом Федотовым, прибыла 22 августа.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визита эксперты посетили множество различных объектов, включая интернаты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в Макарове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циально-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в Аниве, дом ребенка и военный госпиталь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кризисный центр для женщин в селе Троицком, а также - больницы, учреждения уголовно-исправи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спецприемники структур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министерства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и пункт временного содержания иностранцев.

Подводя итоги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Михаил Федотов в целом дал положительную оценку происходящи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зменениям.

В частности, специалисты отметили высокий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и преданность делу сотрудников военного госпиталя, однако отметили, что само здание японской постройки нуждается в обновлении. Оно заметно обветшало и начина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опасность как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учреждения, так и пациентов. В этой связи важной новостью стало озвученное заместителем командующего войсками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Сергеем Долотинным решение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РФ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ового госпиталя. Оно должно начаться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Кроме того, участники Постоянной комиссии призвали командование округа активнее претворять в жизнь решение о передаче в муниципаль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военных городк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между региональными властями и Минобороны России. В частности, в её рамках в начале авгус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у городскому округу были переданы документы и права собственности на участок площадью 0,7 гектара,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южнее проспекта Победы между улицами Горького и Комсомольской.

Как подчеркну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юз семей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России» Мария Большакова, передача военных городков позволит местным органам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бласти приступить к их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ешению многих застарелых вопросо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частники выездного заседания уделили тем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знакомившись с положением дел в этой сфере, они были приятно удивлены качеством услуг и отношением к пациентам соци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но, вместе с тем, дали и ряд рекомендаций министерству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поднимались вопросы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региона, улучшения качества услуг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офилактики подростковой преступности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 Все эти темы находятся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у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мы искренне благодарны за внимание, проявленное к нашей области, за те советы, которые были даны. Уверен, что они позволят еще больше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нашей работы, серьезно продвинуться вперед в решении главной задачи – повышении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Неретин.

## Углегорский район встретил День шахтера выставкой стальных гигантов, обширной праздничной программой и салютом

На крупнейшем угольном разрезе Сахалина – Солнцевском - уже в третий раз организовали шоу карьерной техники.

Огромные машины виртуозно играли в футбол, разрывали наполненные водой бочки. А в ковше самого большого экскаватора даже обустроили жилую комнату с диваном, журнальным столиком и вазой.

- Для нас – это самый необычный День шахтера. Такую внушительную технику видим впервые, хоть и постоянно живем в угледобывающем районе. Ощущения непередаваемые, - признались супруги Евгений и Раиса Марьины, которые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погостили в гигантском ковше.

В этом году выставка стальных машин приняла вдвое больше посетителей – 1100. Желающих сюда доставляли бесплатно автобусами и угощали на месте мороженым.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риглашали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е связаны с угольной отраслью, сообщил технический директор разреза Станислав Вегнер. Наибольший интерес техника вызвала у детей – мальчишки и

девчонки буквально облепили многотонные грузовики и бульдозеры. Сотрудники компании охотно рассказывали о характеристиках современных машин - следить за обстановкой в них помогают камеры, а большинство манипуляци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и помощи джойстиков.

- В этом году разрезу исполнилось 30 лет. В юбилейный год мы постарались не просто организовать выставку техники, а показать ее возможности в динамике. К примеру, в жизни сложно увидеть, как экскаватор играет в футбол или как мощная гидравлика поднимает колеса весом с джип, - рассказал Станислав Вегнер. – Ко всему прочему, организовали на карьере массовое действо. На земле краской нарисовали большими буквами аббревиатуру «СУР», обозначающую Солнцевский угольный разрез. Вставших в контуры посетителей фотографировал дрон. Изображения,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сь, можно будет скачать на сайте Восточной горно-рудной компании.

О подобной технике, говорят местные ветераны-горняки, раньше приходилось только мечтать. Два Василия – Самченко и Коган на двоих отдали любимой профессии более полувека. Работали в одной бригаде. Уголь добывали в шахте, практически вручную.

- Технологии нашей молодости и нынешнего времени – это небо и земля. Мы в свое время не работали, а пахали. Более 1 тысячи тонн в сутки угля когда-то считалось рекордом добычи. А сегодня при помощи современных машин из-под земли извлекается в сотни раз больше. Разрезы активно перевооружаются. Все это внушает оптимизм – у нашего района есть будущее, - сообщил Василий Коган.

- Мы видим, что развитие идет, - согласился с коллегой Василий Самченко. - Ну, и конечно, горняки всегда умели праздновать. Очень рады, что традиция больших горняцких праздников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озобновилась. Спасибо организаторам за яр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в этом году собрало тысячи наших жителей.

Главным местом для праздника стала центральная площадь Шахтерска. Наполненная десятками конкурсов и соревнований программа длилась здесь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Наибольшее внимание зрителей приковал чемпионат по поеданию шахтёрских тормозков. Посетителей угощали бесплатной армейской кашей и сладкой ватой. В угольную тематику погружали фотозоны и конкурс детских рисунков. Детей развлекали огромные трансформеры, взрослых – приглашенная телезвезда комик Дмитрий Романов и множество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з Москвы, Хабаровск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стоящий фурор вызв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коллектива барабанщиков «Васильев Грив». Вместе с ними ритмы отбивала вся площадь – всем желающим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раздали более 1 тысячи надувных барабанных палочек.

В адрес горняков по случаю Дня шахтера прозвучало немало поздравлений. Завершился праздник в Шахтерске красочным салютом.

##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а ежегодная областная педагог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аботников образования

В августе, перед началом нов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водится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совет. В этом году он прошел 28-29 августа.

Со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учителей, руководител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бласти, главы и заместители гла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ные парламентарии, руководители управлений образования, базовых школ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реднего и высш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методических служб и профсоюз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аботников образования - подводят итоги минувше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и обсуждают приоритетные задачи на новый. Главная тема традиционного августовского совещания в этом году – «Приоритет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амках формир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учительского роста».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августов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священа 70-летию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Центральным событием традицион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стала тематическая фотовыставка – «Ровес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представлены фото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материалы о заслуженных работниках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и.

В торжественном открытии августов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сфере об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рина Мануйлова и управляющий директор «Академии Просвещения» Татьяна Суханова. Всего в пленарном совещ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450 человек.

Были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деятельности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и обозначены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на ближайший период. Было сообщено, что области впервые за многие годы принята программ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школ. За предстоящие пять лет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15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Долинске, Корсакове, Макарове, Смирных, Ногликах, а также в селах Тунгор и Кировско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явится четыре новые школы, в том числе для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Перед участниками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ыступ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сфере об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инобрнауки РФ Ирина Мануйлова. Она сообщила сахалинским коллегам о главных задачах, которые стоят перед сферой образования. По ее словам, самые важ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были обозначены на июньской встреч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В. Путина с классным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в Кремле.

- Это социальная защищенность учителей,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и воспитание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 отметила она.

Далее, с основным докладчиком перед собравшимися выступ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Мурашова. Главный акцент в ее выступлении был сделан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учительского роста.

- Только хороший учитель рождает хороших учеников! Над этой проблемой активно работает педагогиче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особрнадзор. Подходы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общенац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учительского роста обсуждались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совещании работников образования в июле этого года.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работу в да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редстоит нам в предстоящем учебном году, - отметила она.

Министр добавила, что важной проблемой, над которой предстоит работать в предстоящем учебном году – перевод школы из ведения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в подчинение региональным властям.

- Такое предложение было озвучено министром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Ольгой Васильевой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По ее словам, нынешняя система, при которой школы подчиняются муниципалитетам, неэффективна и требует перемен, в частности,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вертикали управления. Предлагаемая реформа позволит существенно улучшить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е финансовых средств, направляемых на реализаци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и создать едино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Эта идея поддержана региональ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в адрес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предложения о включен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число пилотных регионов,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а ведомства.

По общему мнению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произошёл существенный прорыв. Почти все учреждения были переоснащены. Оборудовано около трехсот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учебных кабинетов по физике, химии, биологии и математике. Для учреждени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иобретено несколько единиц новой техники (тракторы, автомобили, погрузчики, краны).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школь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отдаленных уголках региона, закуплено 19 автобусов. Все школы области на 100% обеспечены учебниками.

Чтобы привлечь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бласть действует ряд мер поддержки. Это единовременное денежное пособие при устройстве на работу. У педагогов со средни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в городе оно составляет 214,5 тысяч рублей,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 около 270 тысяч. С высши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молодые специалисты в городе получают 286 тысяч рублей,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почти 360 тысяч. Кроме того, предусмотрена надбавка к зарплате в размере 40 %. У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ела должностные оклады, ставки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повышаются на 25 %. Им также компенсируется оплата жилья с отоплением и освещением.

В ходе пленарного совещания проходила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чествования лучших учителей. Островным педагогам были вручены федеральные ведомственные награды,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и почётные грамот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озвучали также тёплые слова в адрес молодых педагогов, которым 1 сентября только предстоит нача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путственные адреса им вруч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Второй день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будет посвящен работе секций. Участники дискуссионных площадок обсудят вопросы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поделятся опытом введения федера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стандартов, затронут вопросы инклюз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тандарта педагога.

Итоговым документом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нет резолюция, в которой будут отражены приоритетные задачи по реализации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олитики в новом учебном год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с 14 лет на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уроки культуры и т. д.)

Заявления принимаются с 28 августа 2017 г.

Начало занятий с 11 сентября в Центре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по адресу пр. Мира, 83 а, офис 3.

Режим работы: 9:00 – 18:00

Обед: 12:30 – 14:00

\*При себе иметь фото 3\*4

Тел. 50-56-96

### 2017~2018년 제2학기 사할린한국교육원 한국어 및 한국문화 희망 교육과정 Расписание уроков кор.яз. и культуры Кореи(2017~2018г.2-ой семестр)

일련	반 (классы)	강사 (преподаватели)	수업일 дни	시간 время	ка- бине- ты
1	에트노스교사반	김주환	월, 수 пн, ср	주간 00:00-00:00	에트 노스 학교
2	한국어 기초 2단계 Кор.яз. начальный (продолж.)	임 엘비라 Им Эльвира	월, 수 пн, ср	17:00-17:50	B
3		인나 블라디미로브나 Ин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17:00-17:50	C
4		한국어 중급반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임 엘비라 Лим Эльвира Анатольевна	18:00-18:50
5	2A	인나 블라디미로브나 Корнеева Ин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18:00-18:50	C
6	한국어 기초 1단계 Кор.яз.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вводный)	권건자 Галина Давыдовна	월, 수 пн, ср	17:00-17:50	A
7	한국어 기초 2단계 Кор.яз. продолж.			1B	18:00-18:50
8	한국어 기초 1단 계 Кор.яз. на- чальн. уровни	바빌키나 다리야 Вавилькина Дарья		17:00-17:50	D
9		올가 예르쇼바 Ершова Ольга	1A	18:00-18:50	
10	한국어 기초 1단계 Кор.яз.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вводный)	전영희 Валентина Дмитриевна	월, 수 пн, ср	17:00-17:50	B
11	한국어 기초 2단 계 Кор.яз. нач.уровень (продолж.)			1B	18:00-18:50
12	Кор.яз. нач. уровни	바빌키나 다리야 Вавилькина Дарья		17:00-17:50	C
13		정혜경 Тен Хе Ген	1A	18:00-18:50	
14	한국어 기초 회화 Кор.яз. разговорный	인나 블라디미로브나 Корнеева Ин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화, 목 вт, чт	17:00-17:50	A
15		임 엘비라 Им Эльвира		1B	18:00-18:50
16	한국문화주부반 Кл. домохозяй- ек(культура)	설원화 Сель Вон Хва		18:00-19:50	C
17	한국문화이해 (예절) Знакомство с культурой Кореи	김주환 Ким Джу Хван	월, 수 пн, ср	17:00-17:50	D
18	한자공부 иероглифы			18:00-18:50	
19	한국문화반 (카드만들기) Оформление поздр. открыток	박혜신 Пак Хе Син		17:00- 19:00	C
20	한국요리교실 마스터 кл.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허은설현 Хе Ын Сель Хен	금요일 пт	17:00-19:00	A
21	무궁화교실 클. пожилых «Мугунхва»	김춘경 Тамара Васильевна	토요일 сб	12:00-13:50	

### '제19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 선정

(3면의 계속)

신경림 시인, 정호승 시인, 최인석 작가 등 13명의 심사위원들은 "응모작에 모국과 가족을 떠나 오랜 시간 살아온 이야기, 그들이 바라보는 낯선 세상의 풍경, 그 안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과정들이 한국적 정서와 함께 녹아들었다"며, "그들의 인생, 모국과 모국어에 대한 향수와 갈망이 때로는 가슴 찡하게 때로는 즐겁게 담겨 있는 훌륭한 작품을 만날 수 있어 반가웠다"고 호평했다.


시 부문을 심사한 신달자 시인은 "향상된 작품들에서 시에 대한 열망이 느껴졌다"며, "오랜 시간 타지에 살면서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우리말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진 만큼 정서적 감정과 언어를 잊지 않은 데에 박수를 보낸다"고 평했다. 구효서 소설가는 "재외동포로서의 경험과 이야기를 단순히 풀어내는 것을 넘어, 소설적 절제미를 갖춘 작품들과 정서적 깊이가 상당한 작품들이 등장했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복거일 소설가는 수필 작품에 대해 "재외동포 문학은 특이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한국 문학에도 영감을 줄 수 있다"고 평했다.

또, 청소년 부문을 심사한 서하진 소설가는 "감동과 교훈을 주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좋은 글들이 국내 청소년들에게도 널리 읽히고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자 30명에게 상패와 50만~300만 원의 상금이, 한글학교 부문 2개교에는 상패와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각 부문별 수상자 시상은 거주국 관할공관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10 сентября - ВСЕ НА ВЫБОРЫ!




## 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Кандидат Давидович Сергей Леонидович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




## 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Кандидат ЧЕРНЫЙ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Все чаще мы видим, что успешными и эффективными политическими 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деятелями становятся лидеры спорта. Умение ставить цели и задачи, достигать их, анализировать успехи и ошибки, видеть корень проблемы и двигаться вперед. Таким мы видим СЕРГЕЯ ЧЕРНОГО.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



## 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Кандидат Кон Сун Дя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ТОН  
ГУРКИН

ЗА ДОСТОЙНУЮ ЖИЗНЬ!

ЗА ЯБЛОКО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 ВЫБОРЫ 10 СЕНТЯБРЯ



# 8 ПРИЧИН ГОЛОСОВАТЬ ЗА СПРАВЕДЛИВУЮ РОССИЮ



1. Устал терпеть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ь?
2. Считаешь тарифы в ЖКХ высокими?
3. Уверен, что заработал сахалинскую пенсию и должен получать её в любом регионе?
4. Полагаешь, что надо отменить транспортный налог?
5. Считаешь, что медицина должна быть доступной?
6. Возмущен, что банки продают долги коллекторам?
7. Хочешь защитить свои права?
8. Твой выбор – 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 ЗАЩИТИМ ПРАВА САХАЛИНЦЕВ!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 이모저모

## (2면의 계속)

참고: 드미트리 예로힌은 울트라마라톤 선수이자 트레이너이며 러시아지리학협회 회원이다. 그는 세계 울트라마라톤 경주에 45회 이상 참가했다. 7월 31일 그는 사할린의 가장 최북단 지점에서 출발하여 가장 최남단 지점(크릴리온 갭)까지 19일 4시간만에 완주해냈다. 이번 경주는 사할린주관광청의 지원으로 조성되었다.

### 울트라марафон по Сахалину попадет в Википедию

Ультрамарафонская дистанция с севера на юг Сахалина попадет в Википедию.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бегун Дмитрий Ерохин на итогов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21 августа.

Ультрамарафонец преодолел дистанцию с 1 тыс. 200 км за 19 суток и 4 часа. Заявку на включение результата в Книгу рекордов Гинесса и национальную Книгу рекордов России будет подан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Кроме того, спортсмен намерен продвигать островной маршрут еще на нескольких площадках.

- Я пишу статью для Википедии о Сахалине. Вся информация, а также фотографии - всего я сделал около 500 кадров - загружу туда. А в середине октября этого года в Москве состоится вики-конференция, где я также буду выступать с докладом. Основная цель -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я намерен побить собственный рекорд, за мной сюда смогут приехать другие спортсмены, которые захотят улучшить время, - пояснил Ерохин.

Кроме того, в интернете вскоре заработает сайт УльтраСахалин.ру, на котором спортсмен поделится собран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 У меня есть треки GPS, я загружу их туда в 20 форматах. Они пригодятся всем, кто будет преодолевать хотя бы часть маршрута - туристы, бегуны, джиперы. Там же размещу и все фотографии, я снимал дороги, тропы, ручьи, водопады... Добавлю описание. Думаю, что этот сайт станет полезным для многих, - рассказал ультрамарафонец.

Кроме того, доклад Ерохина войдет и в федеральный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оп России. Спортсмен уже придумал название - «Большая сахалинская тропа». Сейчас проектом занимается и общество «Знание», и Общественная палата РФ, и комитет по культуре, туризму и спорту РФ. Бегун сообщил о том,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мерен выступить с рассказом об островной дистанции и в Русском географическом обществе.

Справка: Дмитрий Ерохин - ультрамарафонец, трейлраннер и член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За его плечами более 45 ультрамарафонов по всему миру. 31июля он стартовал с самой северной точки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До самой крайней южной точки - мыса Крильон он пробежал за 19 дней и 4 часа. Забег организован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알림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2017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30분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앞에서 제24회 사할린희생동포추념제가 대한민국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 이용택 회장님의 참가하에 거행됨을 알립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조직위원회

## 아시아항공 사할린지점 계약직원 채용 공고

아시아항공 사할린지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함께 일할 여성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응모 바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인원: 2명 (계약직)
2. 계약기간(예정) : 2017.10월부터 1년 6개월간, 2017.12월부터 1년 6개월간
3. 계약 조건: 급여(면접시 상세 안내), 본인 및 가족 항공권 지원(면접시 상세 안내)
4. 기타 안내: 한국어 및 영어 능통자 우선 채용
5. 채용 절차: 이력서, 학력증명서 제출 및 면접 (면접자중 우수자 채용)
6. 업무 내용: 예약 및 발권, 공항업무, 기타 지점 전반의 업무
7. 근무 장소: 아시아항공 사할린지점(라다호텔 1층) 및 공항(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8. 연락처: 전화 722-001 e-mail alexei@flyasiana.com

##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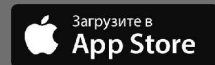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